

**SKB '살아있는 동화 2.0'**

아이 얼굴·목소리 담아 동화책 구성

LGU+ '아이들생생도서관'

자연관찰·과학 등 3D AR로 제공

KT '핑크퐁 이야기 극장'

기자지니로 멀티엔딩 AI 동화 서비스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 고객이 카카오리틀프렌즈폰3를 이용하고 있다.



모델들이 SK브로드밴드의 '살아있는 동화 2.0'을 소개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는 재미와 생생함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며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등으로 아이들동화 읽기부터 영어 콘텐츠까지 생생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사가 부모 세대와 미래 세대를 한 번에 공략하는 영·유아 시장 겨냥 선두에 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자사 인터넷TV(IPTV)에 VR·AR 등 신기술을 결합한 키즈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아이의 얼굴, 목소리, 그림을 담아 아이만의 TV동화책을 만드는 '살아있는 동화 2.0'을 제공하고 있다. 동화 속에서 구현되는 12가지 아이의 표정을 휴대폰 사진첩으로 저장할 수 있다. 스티커로 출력하면 아이가 실물 동화책의 자신의 얼굴을 스티커에 붙이며 즐길 수도 있다.

가족 역할놀이는 가족들의 얼굴을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어 TV로 보내면 TV동화 속 캐릭터별로 아빠, 엄마, 아이의 얼굴사진이 나타나는 서비스다. 또 동화 속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얼굴 표정이 변하기도 한다.

SK텔레콤의 VR·AR 기술인 'T리얼' 적용을 통해 구현된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아이들이 선호하는 동화, 자연관찰, 과학 등의 콘텐츠를 3D AR로 즐길 수 있는 'U+아이들생생도서관'을 출시하기도 했다. U+아이들생생도서관은 'DK', '펭귄랜덤하우스', '옥스퍼드' 등 전 세계 유명 아동도서 출판업체 24개사와 제휴해 영어도서 110편을 3D AR로 제작, 독점 제공한다.

아이가 책을 읽다 모르는 영단어가 나와도 앱 내의 사전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설명하기 어렵던 자연관찰이나 과학현상도 3D 입체북으로 즐길 수

도 출시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7일 초등학생 맞춤형 스마트폰 '카카오리틀프렌즈폰3'를 출시했다. 스스로 스마트폰 앱 사용 계획을 세우는 '스스로모드'를 새롭게 추가했고, 안심지역 설정, 실시간 사진전송 등 기존의 위치조회 기능을 강화했다.

SK텔레콤은 만 12세 이하 전용 상품인 유무선 키즈 브랜드 '잼'을 론칭하며 키즈 전용 스마트폰 'LG X2잼'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동통신사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해 교육 효과를 유발하는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하며 영유아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는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부모 세대를 겨냥하기 위해서다. 정체된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무선 매출이 정체 되는 시기에 키즈 콘텐츠, 단말 등의 서비스를 통해 미래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ICT가 결합된 독창적인 키즈 콘텐츠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metroseoul.co.kr

삼성 클럽 드 셰프 코리아에 신창호 합류

〈레스토랑 '주옥' 셰프〉

셰프 컬렉션과 함께 한식문화 전파

모던 한식 레스토랑 '주옥'의 신창호 셰프가 삼성전자 셰프 컬렉션과 함께 한식문화 전파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최근 신 셰프를 '삼성 클럽 드 셰프 코리아'에 합류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신 셰프가 운영하는 주옥은 문을 연지 1년 6개월만에 미슐랭 가이드 1스타로 선정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별효 식품 인장과 제철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 한식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 클럽 드 셰프는 삼성전자가 2013년 세계적인 미슐랭 스타 셰프로



삼성 클럽 드 셰프 코리아에 새로 합류한 신창호 셰프.

빅데이터로 의류 양·재질 판단, 최적의 세탁**LG전자, AI탑재 세탁·건조기 내달 출시**

DD모터와 인터버 기술력 계승

LG전자 세탁·건조기가 더 똑똑하게 돌아올 예정이다.

LG전자는 다음달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럼세탁기와 건조기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제품은 다양한 세탁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류 양과 재질을 판단, 최적 세탁 조건으로 작동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다이렉트 드라이브(DD) 모터와 수준 높은 인버터 기술력도 계승됐다.

건조기는 LG 씽큐 앱을 통해 세탁기와 연동된다. 스마트 페어링 기술로 세



프랑스 프락 다르티 매장에 전시된 LG전자 세탁기.

탁 코스 정보를 받아 스스로 건조 코스를 알아서 설정해주는 방식이다.

/김재웅 기자 juk@

SK매직, 우수직원 시장 “안심 OK 서비스 철저히”**'2020 연도상 시상식' 개최**
류권주 대표 등 700명 참석

SK매직은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2020 연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류권주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MC(매직 케어) 및 SP(세일즈 파트너)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선 지난 한 해 동안 고객을 위해 노력한 MC와 SP를 격려하고 실적과 서비스가 우수한 직원을 선별해 SK매직상과 대상, 금상, 은상, 크로스패키지상 등 각 부문별 다양한 상이 주어졌다. 또 총 294명의 MC와 SP에게는 상파와 함께 상금과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다.

이날 MC부문 최고상인 SK매직상은 수정지국 송정호 MC, 부산북부지국 최용수 MC, 목포1팀 이은정 지국팀장, 구미서부지국 김규옥 지국장, 경북지부



류권주 SKmagic 대표(왼쪽 3번째)가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2020 연도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옥순 지부장이 수상했다. SP부문은 경기남부지사 이미지 SP, 강남지사 박재민 국장, 이원영 지사장 및 사업단장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고객서비스 점수, 판매실적 등 종합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SK매직상을 수상한 송정호 MC는 "고객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후배 MC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권주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MC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회사의 규모와 가치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안심OK서비스를 더욱 철저히 해 고객에게 SK매직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부, 창작·창업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64곳 추가 조성**내달 28일까지 운영 주관기업 모집**

창작·창업지원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가 올해 64개소 추가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 아이디어 구

현에 필요한 3D프린터·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공간이다. 중기부는 메이커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지난 2018년 65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총 128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올해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60개소와 전문 창작 및 창업 연계 기능의 전문형 메이

커 스페이스 4개소를 준비한다.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창작활동 공간이다. 메이커 입문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업 연계형 전문창작 공간으로 시제품 제작 등 전문 창작 활동과 창업 인프라를 연계해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